

전주지역 중소기업 해외 시장 확대

해외바이어 21개사 초청 수출 상담회 가져...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 제공

독일형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 전주시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 KOTRA지원단(단장 채승완)은 16일 전주영화호텔에서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가졌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KOTRA 해외무역관과 협력해 중국과 프랑스,

베트남, 미국 등 8개 국가의 유망바이어 21개사를 초청했다.

시는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전주지역 우수 수출업체와 내수업체 등 50여 개 업체들과 해외바이어들과의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참여한 기업들의 주요 상담품목은 유자차 등의 식품군과 기초화장품, 마스크 팩 등의 미용제품, 건강제품, 생활잡화 등이다.

또한, 시와 전북KOTRA지원단은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통역 서비스

를 제공하고, 해외바이어에게 참가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상담회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전주를 찾는 해외바이어에게 전주시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자민병원에 서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관광해설사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 관광투어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에도 상반기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8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

도록 도왔다. 대표적으로 솔토씨엔에프(대표 조명록)의 경우, 유아용 로션과 샴푸제품을 연간 30만달러 규모의 거래와 상호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초도물량 1만달러의 수출계약을 현장에서 체결 한 바 있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이번 하반기 수출상담회는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들이 다수 참가했다"라며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니 수출계약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기버스 '일렉시티' 출시

현대차, 1회 충전 시 300km 이상 주행 가능

국내 전기버스 가운데 1회 충전 시 300km 이상 최장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 무공해 전기버스가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주)는 16일 전주공장에서 전기버스 '일렉시티(Elec City)' 1호차 생산기념식을 갖고, 부산 시내버스 회사인 동남여객과 대진여객에 각각 전

특히 실내에는 서서 몸을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힙 레스트(Hip Rest), 실내 화물 적재함, 앞뒤 출입문 초음파 센서 등 고객 안전·편의 사양도 대거 적용됐다.

현대자동차는 일렉시티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일렉시티를 이용하는 부산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A/S 인력을 부산지역에 상주 시킬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기질 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친환경 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기버스는 물론 수소전기버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일렉시티를 시작으로 내년 시범 운행 계획 중인 수소전기버스 등 다양한 친환경 버스 라인업을 확대해 친환경 버스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1호차를 전달받게 된 동남여객 성현도 대표와 대진여객 조현욱 대표를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유재영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본부장, 문정훈 전주공공장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는 일렉시티 1호차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동남여객과 대진여객에 각각 10대씩 총 2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남여객과 대진여객은 우선 일렉시티를 부산 시내버스 노선 중 일부 구간에 시범 운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일렉시티가 운행될 정규 노선을 확정,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발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일렉시티는 2010년부터 약 8년여 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탄생한 무공해 전기버스로, 올 5월 개최된 상용차 종합 박람회 '현대 트럭 & 버스 메가쇼'에서 최초 공개된 바 있다.

일렉시티에는 256kWh 고용량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적용돼 1회 충전(72분)으로 최대 319km를 주행할 수 있고, 30분만의 단기 충전만으로 170km 주행이 가능하다.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버스 내외관에 미래 지향적인 요소를 적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한 것도 일렉시티의 특징이다.

일렉시티의 전면부 디자인은 LED 주간 주행등, 하이테크 이미지의 헤드램프, LED 리어램프를 통해 날렵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빛 고통 받는 서민 구제 해드려요

전주시·주빌리은행, 23일 '금융복지 컨퍼런스' 개최

전주시가 빛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구제하는 금융복지 상담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금융 상담과 채무관리 상담 등을 통해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빛의 골목에서 한겨워하는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 종교단체 등의 후원금으로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등 서민금융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 서왔다.

시와 주빌리은행(은행장 유종일)은 오는 23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국 금융복지상담소 소장과 상담사, 지자체 공무원, 금융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국 100여 명의 금융복지 관계자들이 정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동향에 대응하고, 전국 금융복지상담소의 운영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또, 이상적인 금융복지상담센터 모델을 제시하는 등 뜨거운 강연과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기초발제는 유종일 주빌리은행장이 '불링주빌리, 빛강감 운동의 의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빛강감 프로젝트를 롤링주빌리와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돼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해 빛을

담감해주는 국내 주빌리 은행 운영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첫 번째 국내정책 세션에서는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주시와 광주 광산구, 서울 은평구, 성남시, 서울시 등 전국 7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소의 설립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 소비자정책연구소 진정란 연구원이 가계부채 상담기구로서 상담센터의 역할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전체 참여자들이 함께 바람직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종합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4대 중단 대표와 전북은행장, 유종일 주빌리은행장이 참여하는 부실채권 소각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실채권 소각행사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금융권(전북은행)의 도움과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천주교 전주교구, 대한불교 조계종 금산사, 원불교 전북교구 등 종교단체가 후원한 1000만원의 기금으로 매입한 총 5억8천여만원(원금 2억4천만원, 이자 3억3천만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김민근 기자

하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동반성장 선포식

(주)하림이 16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및 동반성장 선포식'을 전주시 르윈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하림과 농가, 협력업체 등이 협심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림은 현재 농가와 하도급업체 등 700여개 협력사와 상생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윤리경영의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행복나눔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림은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투명 경영과 공정경영 실천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집을 담은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해 각 팀과 개인들에게 배포해 공정 경영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과정과 내용, 이행과정에서 공정성·충실성·정당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사전예방, 사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농장자금 등의 금융지원, 농장의 인증 획득 및 경신을 위한 인력지원등의 시스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중기청, 특성화고 진로·직업 페스티벌 행사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어려운 군산지역 특성화고 등 구직자들에게 채용 현장을 체험하면 서 창업·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4차산업 체험공간을 운영하여 직업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는 23일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2017년 특성화고 진로·직업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진로·직업 페스티벌은 '2017 군산 그랜드 취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채용관, 컨설팅관, 진로체험관 등 부스 운영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진로 탐색 및 취업을 제고할 목적으로 열리는 자리로, 전북도, 군산시, 군산고용노동지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한

다. 채용관에서는 군산지역 대표 중소기업들이 1:1 채용 면접이 진행되고, 컨설팅관에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미지 컨설팅, 진로·취업 상담, 해외취업 상담, 창업컨설팅, 직업심리검사, 이력서사진 촬영 등이 진행된다.

이번 '특성화고 진로·직업 페스티벌' 프로그램인 진로체험관에서는 미래 유망분야인 4차산업의 다양한 트렌드를 진로 및 직업 설정과 연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4차산업 진로 체험존' 부스를 운영하여 특성화고 및 대학생들이 직접 체험하여 진로·직업 정보 습득을 위한 기회가 많이 되도록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